

2024 임팩트그라운드

미래비전 계획서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는

기술이 사람을 도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들과
여러 분야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6월 출범했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사회혁신조직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사회문제를 풀어내고,
스케일업/스케일아웃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실험과 아이디어를 시도해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본 자료는 2024 임팩트그라운드의 지원을 받는 사회혁신조직의 미래비전계획서입니다.
사회공익을 위해, 본 자료를 공유하며, 영리목적의 사용이나 자료의 편집은 불가합니다.

"피치마켓" 미래비전 계획서

■ 제1장 조직소개

● 조직개요

대표자 및 이사회 명단			
대표이사	함의영	現 피치마켓 대표	
이사	권순옥	現 세무법인 로맥 이사	
이사	김신혜	現 (사)아쇼카한국 파트너십·펠로십 디렉터	
이사	정은우	現 특수교사	
이사	김민재	現 피치마켓	
감사	신석호	現 회계사	
감사	최초록	現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설립년월일	2017.12.26. (민간단체 2015.4.20.)		상근직원 수 20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3길 18, 6층		
법인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 임의단체 ☐ 공공기관 ☐ 사회복지법인 ☐ 기타 ()		
홈페이지	www.peachmarket.kr	모 법인명	모 법인이 있는 경우, 기재
공익법인	Y(세법상)	주무관청	서울시 문화예술정책과
조직의 설립목적			
피치마켓은 느린학습자와 언어취약계층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글을 제작하고 독서 문화를 형성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조직의 수익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설립 후, 누적기부금 총액 (~2023) : 총 8,310,000,000 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688	1,202	1,236	1,767	1,453	1,964

- 최근 3년간 수익비용 내역 :

	2021년(연말)	2022년(연말)	2023년(연말)
수익 총계	1,767	1,453	1,964
재단 지원금 총액			1,000
비용 총계	1,115	1,502	1,553

● 주요 사업(3개 이내)

사업명	사업 내용 (한 문장으로 기술)
쉬운글 콘텐츠	인지능력과 문해력이 낮은 느린학습자를 위한 쉬운 글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주제중심 교육	쉬운 글 콘텐츠로 매년 2,000여 명의 느린학습자를 교육합니다.
시끄러운 도서관	느린학습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글을 읽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합니다.

● 키워드 / 조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3개 작성해 주세요.

Ex. #환경 #IT #기술 #사회복지 #알권리 #성소수자 #인권 #장애인...

#느린학습자 #정보평등 #쉬운글

■ 제2장 문제정의와 문제해결 프레임워크

● [문제정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필요성과 중요성을 중심으로 기술 (왜 문제이고 누가 이 문제에 대해 영향을 받는지 설명)

I. 느린학습자 정의

사회적으로 경계선지능인을 느린학습자로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치마켓은 느린학습자라는 용어가 알려지기 전부터 제한된 인지능력과 낮은 문해력으로 학습이 어려운 경계선지능인과 발달장애인을 포괄하여 느린학습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피치마켓이 정의하는 느린학습자는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에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보며, 학습이 불가능하다고 분류되던 사람들도 적절한 콘텐츠로 지속적인 교육을 받으면 학습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치마켓은 '느린학습자'라는 말에서 '느린'보다 '학습자'에 주목합니다. 속도가 느림을 강조하고자 함이 아니라 학습이 가능한 학습자임을 사회에 알리고자 '느린학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속도에 상관없이 배움 그 자체가 자랑스러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사업 대상자의 혼동을 막기 위해 특수교육의 느린학습자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일반교육을 받는 느린학습자를 '경계선지능'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였습니다. 통칭하는 경우는 그대로 '느린학습자'로 표기하였습니다.

II. 사회문제

1. 느린학습자들에게 적절한 콘텐츠가 없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책 이야기를 했어요."

피치마켓 쉬운 글 도서를 읽은 지적장애 2급 권경아 님의 편지글입니다. 권경아 님은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생긴 것만으로 정보를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비장애인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인지능력과 문해력이 낮은 느린학습자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동용 그림책이 전부였습니다. 부모님들 사이에서 "느림이 아동을 뜻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생활연령을 무시하고 아동으로 대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느린학습자들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존감과 다양한 관심사가 생깁니다. 아동용 그림책은 정보에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자존심이 상해서 더 이상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회와의 정보 격차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벌어지게 됩니다. 글을 읽을 기회조차 줄어들면서 문해력 역시 非느린학습자와 격차가 더 커집니다. 정보 격차와 문해력 격차는 소통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대화의

기본은 공통분모가 되는 정보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느린학습자가 사회구성원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면 최소한의 정보와 대화거리가 필요합니다. 교육 불균형, 정보 격차, 소통 단절 등 느린학습자 관련 많은 문제가 콘텐츠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2. 느린학습자 전문 교육 기관이 없습니다.

느린학습자 청소년은 특수교육과 일반교육 사이에서 최선의 교육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나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① 특수교육에서의 어려움

“특수 선생님들은 당장 힘든 아이들 위주로 움직이고...”

“우리나라 교원 우수해요. 다 상위 1%...”

이 집단을 활용을 못 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문서 작업에 치이다 보니...”

특수교육은 학생 개인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개별 학생에게 알맞은 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IEP(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느린학습자들에게 적합한 교육이지만 현실에서는 느린학습자 교육에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사 부족과 과도한 교육 외 업무입니다. 학생 4~7명 당 교사 1명 배치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특수학급은 법정 기준을 30% 이상 초과하고 있습니다.

일반교사와 달리, 특수교사는 (1)빈번하게 발생하는 학생들의 행동 문제에 대처하고 정서 관리를 병행해야 합니다. 수업 중 돌발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으면 돌발 행동하는 학생을 먼저 돌볼 수밖에 없습니다. (2)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수가 적기 때문에 소수의 특수교사가 모든 행정 업무도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3)특수교육 학습자료가 부족하여 모든 수업에 필요한 학습자료는 특수교사 개인이 직접 리서치하고 제작하여야 합니다. 심지어 삽화, 편집디자인까지 직접 합니다. (4)같은 학급 안에서도 학생들의 학습성취도와 발달의 차이가 큼니다. 학생들의 학습성취도에 따라 분리되어 교육이 진행되기 쉬운 환경입니다.

교사의 업무를 늘리지 않고도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려면 콘텐츠와 교육 커리큘럼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② 일반교육의 어려움

*“선생님들이 느린학습자에 대해 전혀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진이 없어요.”*

*“4시간 내내 뉘 놓고 앉아서 책도 안 꺼내는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한다는 거야. 방해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일반교육 안에서도 느린학습자들은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 동북권NPO 센터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어려움에 대한 기초조사’ 중 ‘느린학습자 자녀가 학교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느린학습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부족’이라는 응답이 61.2(16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54%(142명)는 ‘교사의 인식과 전문성 부족 및 무관심’으로 응답했습니다.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교육 콘텐츠가 없습니다. 적절한 교육 방식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경계선지능인을 포함한 학습부진아 등의 교육 지원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의 정의나 특성 및 교육 지원 방법에 대해 여전히 알려진 바가 적고, 객관적 선별 체계가 없습니다. 경계선지능인으로 선별되어도 자녀가 경계선지능인으로 불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이해 부족으로 교육 지원을 위한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반학급의 경계선지능인들에게 적절한 콘텐츠와 교육 지원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학급 경계선지능인들을 찾고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Ⅲ. 느린학습자 교육 전문 기관의 필요성

특수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발달장애인, 경계선지능인)와 일반교육을 받는 경계선지능인은 다른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며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은 다를 수 있지만 느린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교육 기회가 만들어져야 함은 같습니다. 느림이 불가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느린학습자들이 적절한 콘텐츠와 교육 기회를 통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특수교육과 일반교육 사이에 징검다리가 필요합니다.

● [프레임워크] 우리 조직이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문제해결 모델)

프레임워크 소개 : 타겟 및 접근 방법 등

I. 타겟

1. 학습이 어려운 느린학습자

느린학습자는 개개인의 발달속도가 모두 다릅니다. 같은 나이라도 현재 어느 정도의 발달을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교육도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도움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피치마켓은 특수교육과 일반교육 과정에 있는 느린학습자들에게 적절한 콘텐츠와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느린학습자를 교육하는 교사들에게 콘텐츠와 교육 방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① 특수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

*“평소에는 밥을 먹었느니 안 먹었느니 그런 얘기만 하던 게,
이제는 로빈슨 이야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피치마켓 '로빈슨크루소' 쉬운 글 문학으로 독서 교육을 진행한 서울아현초등학교 특수 교사의 피드백입니다. 느린학습자들은 정보 격차로 인해 대화의 주제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상대방의 이야기에서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여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피치마켓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느린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글로 재구성하고 교육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대화거리를 제공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인까지 포함한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251,521명입니다.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 혹은 경계선지능 느린학습자는 현재 103,695명입니다. 피치마켓이 타겟으로 하는 발달장애인 및 특수교육 대상자는 약 30만 여 명입니다.

② 일반교육을 받는 경계선지능인

“우리 아이는 글자를 소리 내서 읽을 수는 있지만 이해는 하지 못해요.”

피치마켓 독서 교육에 참여한 경계선지능 초등학생 경준이의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경준이는 3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피치마켓에서 쉬운 글 도서로 독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점차 글이 만만해지기 시작하며 문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3년 뒤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검정고시 문제집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되면서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까지 하였습니다. 모든 경계선지능인이 경준이만큼 변화가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마다의 속도로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왔습니다. 일반학급의 경계선지능인, 후천적 원인으로 인지저하가 발생한 보육원 아동 등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교육합니다. 일반교육을 받는 경계선지능인은 정확한 통계조차 없지만 전체인구의 13.59%로 일반학급 학생 중 80만여 명 (한 학급 당 3~4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 특수교사

*“짧은 글과 그림이 많은 동화를 읽혀야 할까,
아니면 나이에 맞는 소설을 읽혀야 할까...
피치마켓 쉬운 글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유익한 책입니다.”*

피치마켓 쉬운 글 매거진으로 독서 교육을 하고 있는 대전월평중학교 특수교사의 피드백입니다. 피치마켓 도서로 독서 교육을 시행한 특수교사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피드백은 ‘학생들이 책을 이해해서 신기하다.’, ‘이런 책을 만들 생각은 왜 못해 봤을까’입니다. 콘텐츠가 부족하여 교육의 한계를 느꼈던 특수교사들에게 ‘쉬운 글 도서’는 다양한 주제로 교육이 가능하게 된 단비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시행한 2020 교육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수 학습 자료에 대한 특수교사의 응답은 ‘국가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교과용 도서’가 40.3%, ‘시중에서 판매하는 교수 학습자료’가 23.8%, 자체 개발한 교수 학습자료’가 16.9%로 나타나 일반교사에 비해 교과서 활용도가 낮으며 자체적으로 교수 학습자료를 찾거나 제작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피치마켓은 특수교사들에게 콘텐츠를 활용한 독서 교육과 주제중심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연수를 통해 특수교사들이 새로운 교육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현재 24,962명의 특수교육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II. 접근 방법

1. 쉬운 글 콘텐츠

‘쉬운 글’은 피치마켓이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느린학습자 관련 기관들이 고유명사처럼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피치마켓은 느린학습자들의 제한된 인지능력, 문해력, 어휘력, 집중력, 기억력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정보를 쉬운 글과 디자인으로 재구성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쉬운 내용을 쉬운 단어로 단순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선 공약, 노동법, 뉴스, 인문학 등 느린학습자들이 그 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정보를 7세 아동의 인지능력과 문해력으로 이해할 수 있게 재구성합니다. 현재는 단행본뿐만 아니라 월간지를 발행하여 특수교육 수업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장을 쉽게 바꾸는 과정만으로도 느린학습자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문장 하나를 이해하는 것보다 글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고 기억하려면 기획과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피치마켓의 쉬운 글은 문장을 이해하는지 차원을 넘어 맥락을 이해하고 얼마나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지까지 고민하여 만들어집니다. 피치마켓은 지금까지 200권 이상의 쉬운 글 도서를 출판하고 연간 3만 여 권의 쉬운 글 도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특수교육 콘텐츠 플랫폼, 피치서가

피치마켓은 처음으로 쉬운 글 콘텐츠를 개발한 후 단행본과 월간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IT 기술을 접목한 특수교육 콘텐츠 플랫폼, 피치서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치서가는 기존의 도서가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여 문해력 수준에 상관없이 모두가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가장 큰 변화는 느린학습자들의 글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각자 도서를 읽을 때는 독서를 '개인 활동'으로 인식하여 쉽게 흥미를 잃고 동기부여가 약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형 모니터를 통해 콘텐츠를 접하게 되면서 모든 학생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낭독과 토론이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환경으로 바뀌면서 글 읽는 행위를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화 활동'으로 인지하게 되어 집중력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2)그림사전, 오디오북, 판서 기능을 구현하여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와 상관없이 모두가 분리되지 않고 같은 콘텐츠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교사가 수업에 활용할 주제를 선정할 수 있어 특수교사의 개입과 주도적인 수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수업 준비 시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여 업무량이 많은 특수교사도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육 콘텐츠 플랫폼, 피치서가>

3. 주제중심교육

그 동안 특수교육에서는 콘텐츠가 없어 단어 학습, 발표 연습, 체험 활동 등을 따로 진행하였습니다. 피치마켓은 콘텐츠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직접 느린학습자들을 교육합니다. 피치마켓의 교육은 (1)읽기 역량: 정기 독서 활동을 통해 문자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문해력을 향상시킴. (2)쓰기 역량: 글쓰기 훈련을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킴. (3)말하기 역량: 도

서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시도하여 의사표현 능력을 향상시킴. (4)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주제중심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상대 의견을 존중하는 훈련을 중점 목표로 합니다. 또한 글을 읽고 학습한 정보를 통해 느린학습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주제를 중심으로 연계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피치마켓은 현재 연간 2,000여 명의 느린학습자들을 4회~16회 교육 커리큘럼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4. 특수교사 직무연수 및 멘토 양성

기존과 다른 새로운 교육 방식을 특수교사들이 학습하여 수업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쉬운 글 콘텐츠를 활용한 주제중심 교육 직무연수를 진행합니다. 또한 특수교사 주제중심 교육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직 특수교사 100여 명이 월2회 정기적으로 만나 주제중심 교육 커리큘럼을 연구하고 다른 교사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학과, 교육학과, 사범대학 대학생들을 선발하여 60시간 교육 후 느린학습자 교육봉사를 진행합니다. 연간 600명의 대학생들이 600명의 느린학습자들과 매주 1회 정기적으로 만나 쉬운 글을 활용한 1:1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 시끄러운 도서관

느린학습자들은 도서관을 '신성한 곳'으로 생각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공부만 하는 신성한 곳이라 자신은 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서울시 시끄러운 도서관 설립을 위한 연구조사 결과) 피치마켓은 특수교사를 통해 느린학습자에게 콘텐츠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참여의사가 없으면 느린학습자 개인이 참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느린학습자들이 학교와 밖에서도 언제든지 책을 접하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도서관'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떠들어도 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시끄러운 도서관은 느린학습자들에게 신성한 곳이 아닌 만만한 곳이 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의 공간 운영 노하우를 공공도서관에 적용하여 서울시 공공도서관에 9개의 시끄러운 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기존 프레임워크와의 차별점(혁신점)

I. 느린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글

피치마켓이 처음 '쉬운 글'을 고안하여 세상에 내놓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대부분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책을 왜 만드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쉬운 글은 전문가도 상상해본 적 없는 해결방안이었기 때문에 선례는 당연히 없고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논문조차 없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글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특수학급에 1년간 학생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일기를 '따라쓰기' 하였습니다. 각 학생들이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문장구조와

글쓰기에서 사용하는 언어, 문장구조를 비교하며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글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9년간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면서 '쉬운 글'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알려왔습니다. 현재는 많은 기관이 피치마켓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려운 단어를 쉬운 단어로 바꾼다고 느린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느린학습자가 이해하려면 단순히 쉬운 것이 아니라 느린학습자의 어려움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쉬운 글'이 아니라 '느린학습자에게 적절한 글'이 되어야 합니다. 피치마켓의 차별점은 쉬운 글을 만드는 매뉴얼입니다.

II. 기술 적용으로 활용도 증가

책은 책으로서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느린학습자에게는 더 친절하고 반복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책의 한계점을 교사의 지원과 도움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도서 한 권을 수업시간에 읽기 위해서는 특수교사가 준비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특수학급에서 독서 활동이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인쇄된 도서는 분명 가치가 있지만 특수교사들에게는 너무 어렵고 고된 일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쉬운 글에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1. 기술 적용으로 쉽고 편한 교육 지원

디지털 콘텐츠는 글 읽기 중 어려운 단어를 클릭하면 그림사전이 나타납니다. 오디오북은 교사가 일일이 읽어주던 수고를 덜어줍니다. 오디오북을 실행하여 느린학습자들이 듣기 활동을 반복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판서 기능을 통해 더 이상 교사들이 인쇄 도서를 페이지마다 스캔하고 컴퓨터에 옮기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디지털화된 콘텐츠와 기능들을 활용하여 특수교사들은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됩니다.

2. 콘텐츠 유형 다양화와 디자인

느린학습자들이 정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수단으로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쉬운 글도 how to를 설명하는 것은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보의 성격에 따라 글과 영상을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모르는 단어를 빠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그림사전을 개발하였습니다. 피치마켓은 다수의 의사소통 보조도구(AAC) 제작한 경험을 토대로 단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치마켓은 느린학습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글자 간격과 문장 간격, 콘텐츠 여백 등에 대한 상세한 편집디자인 매뉴얼이 있습니다. 또한 글자 오독률을 낮추기 위한 느린학습자 전용 서체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콘텐츠 제공을 넘어 교육의 방향 제시

피치마켓의 성장과 전문성은 느린학습자를 위한 콘텐츠 개발과 교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누구보다 콘텐츠를 잘 알고 있어 차별화된 교육 커리큘럼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매년 2,000여 명의 느린학습자들에게 직접 교육을 하기에 교육 현장의 필요한 부분과 다양한 피드백을 콘텐츠에 빠르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점도 또 하나의 차별점입니다. 나아가 특수교사들의 쉬운 글 콘텐츠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피치마켓의 교육 커리큘럼과 다른 교사들의 콘텐츠 활용 수업 과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느린학습자를 위한 ooo을 개발하였다.'라는 한 줄의 업적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글이 얼마나 많은 느린학습자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읽히고 얼마나 이해를 하였으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까지 고민하는 것이 피치마켓만의 강점입니다.

●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성공의 경험

본 조직의 문제해결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성공한 경험에 대해 기술

I. 사회적 인식 변화

*“우리 애들은 글 못 읽어요. 마음은 고맙지만
사업으로 하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9년 전 피치마켓을 설립하면서 특수교사, 느린학습자의 부모님들께 자주 들었던 말입니다. 그 동안 느린학습자들은 인지능력과 문해력에 맞는 책이 아동용 그림책 밖에 없었습니다. 책을 읽거나 상위학습을 한다는 것은 특수교육에서 낯선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사업화가 불가능하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피치마켓에서 발간한 다수의 도서가 도서 판매 플랫폼에서 베스트셀러로 선정되면서 느린학습자 전문 콘텐츠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II. 연구를 통한 결과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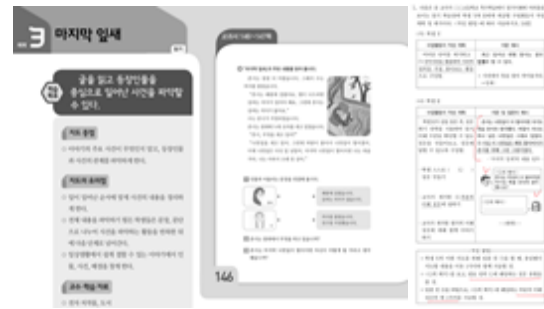
이화여대 국어교육학과 김은성 교수님께서 호기심으로 시작하신 연구 논문 하나가 국어교육학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피치마켓의 도서와 일반 도서의 난이도를 비교하는 연구 결과 피치마켓 도서는 7세 아동의 문해력과 인지능력으로도 어려운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글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느린학습자 국어교육 과정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국어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6개월 이상 피치마켓 교육에 참여한 느린학습자들의 문해력이 평균 14% 향상되었다는 연구도 진행되었습니다.

III. 다수의 수상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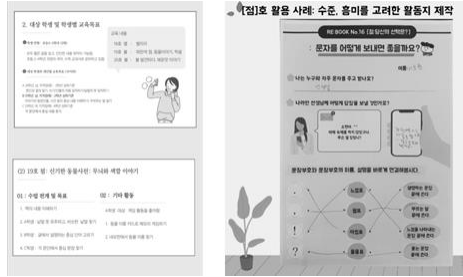
국민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디자인학과와 느린학습자 전용 서체인 ‘피치마켓체’를 공동 개발하였습니다. 느린학습자 60명이 6개월 동안 연구에 참여하여 eye tracking을 통해 최적의 서체를 찾아 글자 오독률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피치마켓체’는 2023 레드닷 어워드 커뮤니티 부분에서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느린학습자 정보접근성 향상 기여를 인정받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여하였고 카카오펠로우, 뷰티풀펠로우, 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 등에 선정되었습니다. 기관 역시 아산나눔재단 ‘파트너십온’, 서울시 ‘사회혁신 프로젝트’ 등 선정되었습니다.



<문해력 14% 향상 연구>



<교과서 수록 / 임용고지 지문 출제>



<특수교사 학습자료 제작 공유>



<응급차 AVL 시스템 탑재>

■ 제3장 미래비전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어떤 요소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I. 느린학습자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피치마켓 3.0

쉬운 글을 개발하고 다양한 주제의 도서를 발행하는 것이 피치마켓 1.0의 단계였다면 현재는 특수교육환경 개선에 집중하는 피치마켓 2.0의 단계에 있습니다. 임팩트 그라운드를 통해 피치마켓 3.0 단계로 도약하여 일반교육을 받는 경계선지능인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II. 일반학급 경계선지능인의 학습부진

일반학급 경계선지능인은 학습축적이 느리기 때문에 非느린학습자보다 더 많은 반복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결된 사고가 되지 않아서, 단계별로 하나하나, 각각의 내용을 알려줘야 합니다. 1+1을 이해하여도 2+2를 다시 알려줘야 하고, 손톱을 깎아도 발톱은 깎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일반학급 경계선지능인들은 교과과정에 따른 학습에도 다른 교육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반학급 경계선지능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려움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현재 교육시스템에서 거의 모든 일반학급 경계선지능인은 학습부진 상태에 있습니다.

공교육에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보니 부모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느린학습자 부모로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절반에 가까운 46%(121명)가 '부모와 가족이 모든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일반학급 경계선지능인의 부모들이 학습 성취가 느리고 학업에 관심을 갖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시키며 발버둥치는 이유는 명문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학교에 적응하고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기 바라기 때문입니다. 학습속도가 느린 일반학급 경계선지능인들은 교실에서 쉽게 뒤처지고 사회성이 부족해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듭니다. 우리 사회에서 학습부진은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지고 왕따 등 사회적 문제가 뒤따릅니다.

일반학급 경계선지능인 아이들은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非느린학습자 아이들의 10배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초등학생 무렵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사회성과 언어능력 등이 일정 부분 좋아져 자립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방치할 경우 지적장애 수준으로 인지능력 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학급 경계선지능인들의 부모들이 답답한 이유는 사교육마저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영리 목적이 강한 사교육에서 일반학급 경계선지능인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의 학습을 방해하고 학원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어 학원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학급 경계선지능인 부모들은 언어치료 등 교육이 아닌 치료에 의존하거나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학급 경계선지능인 교육은 단순한 입시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교육이 필요한 일반학급 경계선지능인은 갈 곳이 많지 않습니다. 학습 속도가 일반학급 다수의 학생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그렇다고 학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학급 경계선지능인 교육만을 전문적으로 고민하는 기관이 필요하고 일반학급 경계선지능인들이 마음 편히 교육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Ⅲ. 일반학급 경계선지능인 교육 기회 전국 확산

피치마켓은 콘텐츠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느린학습자 교육 공간을 운영하며 느린학습자를 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치마켓 혼자 힘으로 교육환경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콘텐츠가 있어도 교육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피치마켓이 콘텐츠 개발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고민하고 교사들과 소통하는 이유입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지리적 접근성이 높아 많은 특수교사와 느린학습자들이 쉬운 글을 접하고 교육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서비스에 아쉬움을 표현하는 특수교사와 느린학습자 부모님들도 많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이해하시고 천안, 대전, 부산 지역에서도 매주 혹은 정기적으로 피치마켓 공간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피치마켓은 임팩트그라운드를 통해 지역에 거점을 마련하고 전국 느린학습자에게 쉬운 글 콘텐츠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국의 잠재 교육자들을 교사로 양성하여 교육의 기회를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Ⅳ. 다양한 기관과 협력

느린학습자 교육 콘텐츠와 교육 커리큘럼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교육 관련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및 지역 기업과의 협력하여 지역 느린학습자도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사업의 성과 정의

임팩트 그라운드 지원에 의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어떠한 변화를 '성공'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I. 느린학습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을 교육자로 양성

워크스페이스는 일반학급 경계선지능인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자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교육자 양성을 위해 '느린학습자 교육자' 양성 과정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느린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종사자들이 교육자로 성장하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 동안 공교육과 사교육 시스템 안에서 교육 기회가 없었던 많은 느린학습자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II. 일반학급 경계선지능인을 이해하는 예비교사 증가

현재 피치마켓 대학생 교육봉사단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교육봉사단은 3:1의 경쟁률을 보일 만큼 예비교사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교육봉사단에 깊게 개입하여 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때문에 물리적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크스페이스가 설립되면 지역 대학의 예비교사들도 교육봉사단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교육봉사단 참여 지역을 분석하여 확산 분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 교육봉사단의 일반학급 경계선지능인 이해 수준 변화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III. 특수교육의 교육 주제 다양화

워크스페이스가 설립되면 지역의 특수교사들이 모이고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또한 주제중심 교육 커리큘럼과 학습자료가 공유되면서 다양한 주제로 교육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역 특수교사들이 수업 중 진행한 교육의 주제 변화를 측정하여 특수교육의 양적, 질적 변화를 측정합니다.

IV. 일반학급 경계선지능인의 학업성취도 향상

일반학급 경계선지능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콘텐츠와 모바일 앱이 개발되면 일반학급 경계선지능인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일반학급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문해력과 어휘력을 포함하여 학습 수준 변화를 측정할 계획입니다.

● 스케일업 또는 스케일아웃에 대한 계획

Scale-Up 이란? 조직의 규모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

Scale-Out 이란? 조직을 분화/모델링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평적 방법

I. Scale-Up

피치마켓은 늘 처음이었습니다. 벤치마킹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가설을 세우고 가설이 입증될 때까지 수많은 실패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마켓은 변화와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임팩트 그라운드를 통해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장하겠습니다.

1. 조직의 규모 확대

피치마켓은 느린학습자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실질문맹 개선을 목표로 설립되어 9년 동안 느린학습자를 위한 콘텐츠와 교육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느린학습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많습니다. 피치마켓 혼자 힘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쉬운 글로 재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직접 느린학습자를 교육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느린학습자 교육의 전국 확산을 위해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여 교육자들을 양성하고 교육 커리큘럼을 체계화하겠습니다.

2. 조직의 역량 강화

기존과 같은 인쇄 도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는 콘텐츠 확산에 제약이 생깁니다. 콘텐츠 확산과 비례하여 인쇄 비용과 운송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콘텐츠 이용자 수를 제한하게 됩니다. 이미 인쇄한 도서가 모두 소진되지 않아 재고가 발생하면 창고 임대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사전에 수요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며 예측 수량보다 적게 발행하게 됩니다. 재고가 모두 소진되면 과거의 콘텐츠를 재생산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인쇄 시에는 최대 2주의 기간이 소요되며 인쇄업체의 작업량에 따라 납기일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더 많은 느린학습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콘텐츠 발행 방식에 혁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 도입으로 느린학습자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효과적으로 콘텐츠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II. Scale-Out

피치마켓의 수많은 실패로 다듬어진 현재의 서비스는 단단하고 날카롭습니다. 피치마켓의 성공 사례와 노하우로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여 전국의 느린학습자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워크스페이스의 모델링

- ① R&D 강화 : 교육 커리큘럼 개발과 교육자 양성 과정 개설
- ② 주제중심 교육 : 지역 특수교사를 채용하여 주제중심 교육 훈련 후 지역 느린학습자들에게 직접 교육 서비스 수행
- ③ 특수교사 직무연수 : 지역 특수교사 대상으로 주제중심 교육과 콘텐츠 활용 방안을 교육하여 지역 특수교사들이 새로운 교육 방식을 도입
- ④ 특수교사 연구모임 : 한 학교에 소수만 근무하는 특수교사들이 다른 인근 학교 교사들과 교육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⑤ 대학생 교육봉사단 : 지역 대학의 교육학과와 협력하여 교육봉사단 확대
- ⑥ 공간 운영 : 혜화동에서 진행한 콘텐츠 활용 이벤트와 전시 프로그램을 거점 워크스페이스에 동일하게 적용
- ⑦ 지역 기업 및 기관 협력 : 피치마켓에서 수행해온 CSR 사업 모델을 지역 기업에도 제안하여 지역 CSR 사업 진행

● 디지털 기술의 활용

스케일업 또는 스케일아웃의 과정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기술

I. 느린학습자 교육 앱 개발

1. 개발 목적

임팩트그라운드를 통해 개인 사용자를 위한 모바일 교육 앱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느린학습자 교육 앱'은 인쇄 도서보다 교육자의 수업 준비 기간이 단축되고 교육의 수준을 높일 수 있어 느린학습자와 1:1 방식으로 교육 시 교구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 앱은 향후 전문가를 기획에 참여시키고 사용자 분석을 하여 더 견고한 기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앱 유저

'느린학습자 교육 앱'이 개발되면 일반학급 경계선지능인 80만여 명이 '느린학습자 교육 앱'을 이용하여 다양한 주제의 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103,605명 중 혼자 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7만여 명(전체의 70%)이 '느린학습자 교육 앱'으로 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느린학습자와 1:1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 담당자가 앱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으로 보육원 아동,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 격차로 인해 학업성취도가 낮은 저소득층 학생까지 이용자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앱 개발이 완료되면 최소의 비용으로 인원 제한 없이 모든 느린학습자가 다양한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3. 앱 개발 계획

앱 오픈 시 최소한의 콘텐츠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학급 경계선지능인의 행동패턴과 앱 사용 인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후 앱 기획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팩트 그라운드 1년차에는 콘텐츠 제작과 기획에 할애하고 2년차에 본격적인 앱 개발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개발 기간은 1년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QA 기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QA까지 완료되면 베타서비스 기간을 두어 초기에 다수의 일반학급 경계선지능인과 피치마켓 내부 직원, 테스트전문 기업이 동시에 앱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2년차에 그랜드오픈까지 완료하고 기획이 추가되거나 보완 사항이 발생하면 3차년도 예산을 조정하여 추가 개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I. 워크스페이스 디지털화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인쇄 도서 없이 태블릿 PC만 활용하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워크스페이스를 교육 서비스 제공 공간뿐만 아니라 느린학습자 교육 콘텐츠 앱 체험존으로 활용하여 방문자들이 워크스페이스에서 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상의 어려움이 발생하면 직원이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